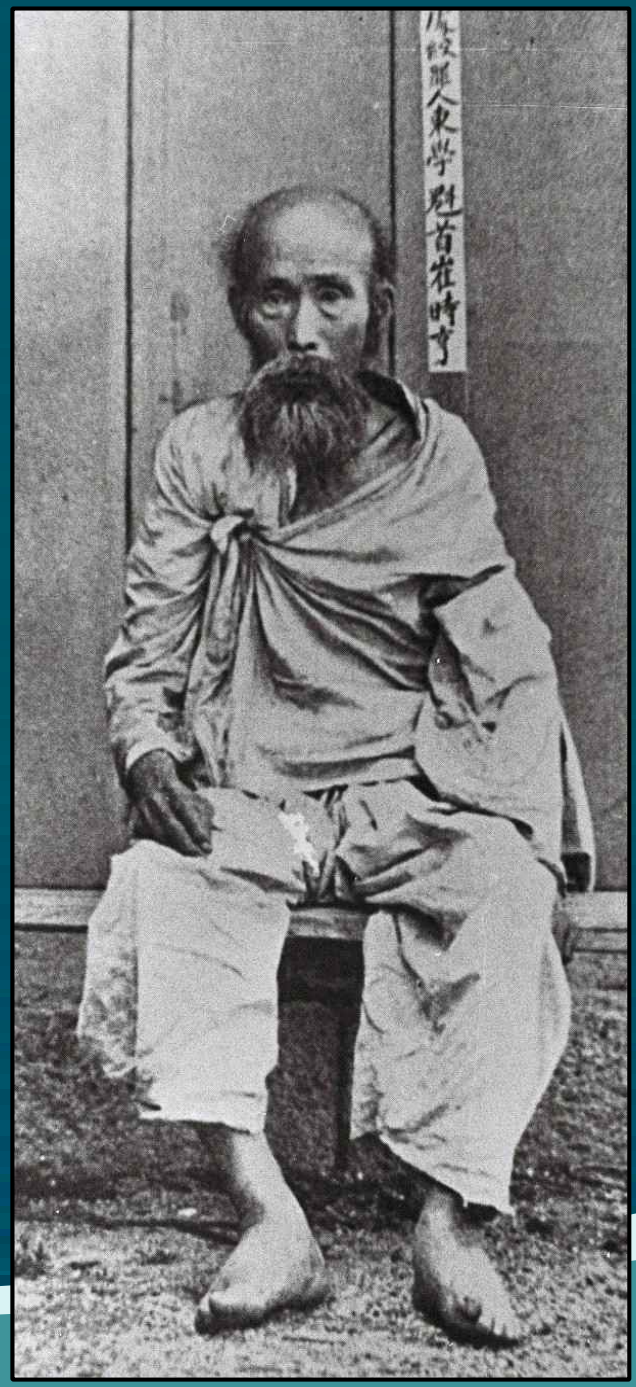
경전으로 읽는

천도교

제2강

海月 神師

崔時亨



海月神師 法說

待人接物

事人如天

侍天主와 事人如天

人是天 事人如天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事人如天의 실천

어린아이의 문제

부녀자의 문제

EBS1
이린어
소파 방정환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자.
삼십년 사십년 뒤진 옛 사람이
삼십 사십년 앞 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 받쳐서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1930년 7월
어린이인권운동가 방정환

小波

잔물결

잔물결이 흘러 흘러서 내를 이르고 강을 이르고, 마침내는 큰 바다에 이르러 크나큰 물이 된다.

잔물결은 이제 막 자라는, 그래서 큰 바다를 향해 가는 어린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婦人
創刊號
장간호
부인

新女性
신여성

班常 嫡庶라는 縱的인 차별

男女 老少라는 橫的인 차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실천

侍天主와 待人接物

萬物 皆莫非侍天主 能知此理 則殺生不禁而自禁矣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天地萬物 皆莫非侍天主也 彼鳥聲亦是侍天主之聲也

『해월신사법설』. 「영부 주문」

'侍天主'는 다만 사람만이 한울님 모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한울님 모시지 않음이 없다는 의미

鳶雀之卵 不破以後 鳳凰來儀
草木之苗 不折以後 山林茂盛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三敬思想

敬天

敬人

敬物

接化群生에 뿌리를 두었다고 하겠으며

이는 곧 弘益人間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事事天 物物天

以天食天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의 모심'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다.

侍天主의 '시(侍)', 곧 '모심'을 수운 선생은 內有神靈, 外有氣化, 各知不移로 해의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울로서의 우주생명이 개별생명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하는지에 대한 생명론적 언명이기도 하다.

內有神靈 : 개별생명인 만유는 우주적 생명을 안으로 품고 있으며

外有氣化 : 밖으로는 기화를 통해 전 생명계와 관계성을 지니며 상호작용을 한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

개체생명으로서의 인식을 우주적 생명, 또는 온생명

전환의 필요

以天食天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담겨 있다.

인심의 편견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한울 전체로 보아야 한다.

한울님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同質的 氣化와 異質的 氣化를 동시해 해나감을 알 수 있다.

동질적 기화(氣化)

큰 생명체인 우주는 한편으로는
햇살을 보내고 비를 내리게 하여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 또 살아가
게 하므로 종속을 기르고 있다.

이질적 기화(氣化)

한편으로는 먹이를 위하여 먹고 먹히는

서로의 연결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宇宙

한쪽 편에서 동질적 기화로 종속을 기르게 하고

다른 한쪽 편에서 이질적 기화로써 종족과 종족의 서로 연결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합하여 말하면 한울님이 한울님을 먹는 다는 것(以天食天)은

한울, 곧 우주의 기화작용으로 볼 수가 있다.

향아설위

向我設位

向壁設位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제례법

向我設位

동학 천도교의 정신이 담긴 제례법

向我設位
事人如天

2014년 마을만들기사업 「맹산동 향아설위(向我設位)이야기」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비 제막식
주관 : 이천시
주최 : 설성면주민자치위원회
向我設位
事人如天

神師問曰 奉祀之時 向壁設位 可乎 向我設位 可乎 孫秉熙 答曰 向我設位可也 ...<중략>... 任奎鎬 問曰 向我設位지리 是何故也 神師曰 我之父母 自始祖以至於幾萬代 繼承血氣而至我也 又父母之心靈 自天主幾萬代繼承而至我也

父母之死後血氣 存遺於我也 心靈與精神 存遺於我也 故奉祀設位 爲其子孫而本位也 平時食事樣 設位以後 致極誠心心告 父母生存時教訓 遺業之情 思而誓之可也

『해월신사법설』. 「향아설위」

향아설위 제례법의 정신

향아설위의 의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